



<p><b>1. 벤담</b> : 공리주의</p> <p>- 최대 행복(=쾌락)의 원리</p> <p>가. 도덕적 고려의 기준: [쾌고 감수 능력]</p> <p>: 인간을 포함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음</p>	<p><b>2. 싱어</b> : 『동물 해방론』,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적 관점</p> <p>-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동물의 '복지'를 강조함</p> <p>가. 공리주의적 관점에 근거</p> <p>: 인간과 동일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인간과 달리 차별하는 태도를 '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'라고 비판</p> <p>- 평등은 기본적인 윤리적 원칙으로 모든 이익 관심을 갖는 존재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</p> <p>- [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 동물사육실태와 과도한 고통을 가하는 동물 실험 반대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정]: 동물에게 작은 고통, 인간에게 큰 이득</p> <p>-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음</p> <p>나.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함</p> <p>but) 동일한 [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(=처우)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</p> <p>다. [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: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</p>
---	--

<p><b>1. 칸트</b> (인격을 목적으로 대하라)</p>  <p><b>임마누엘 칸트</b> 1724~1804</p> <p>18세기 독일의 철학자 대표 저서 [순수이성비판], [실천이성비판]</p> <p>의무론적 윤리, 인간중심주의</p>	<p><b>3. 칸트</b> : 인간중심주의적 관점</p> <p>-인간은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의무를 지니지 않는다.</p> <p>-인간은 동물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.</p> <p>-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인간을 대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칠어지기 때문이다.</p> <p>-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도덕 의무에 불과하다.</p> <p>※동물 자체에 대한 [직접적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고 보지만, 동물에 대한 학대는 인간 자신의 [④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저하를 초래하므로 [간접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이라고 보았다.</p>
---	--



오르본 시안 말에게서 짐승 고마워. ♡

정말 고마운 존재들이야.

“늙은 말이나 개의 오랜 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(마치 그것들이 집안의 구성원인 것처럼)은 인간이 동물과 관련하여 가지는 간접적 의무에 속한다.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면 그것은 언제나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에 대한 의무일 뿐이다.”

<p><b>1. 인간 중심주의 (Anthropocentrism)</b></p>  <p>핵심: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. 자연은 수단.</p> <p>칸트: 간접적 의무 (동물 학대 → 인간 도덕성 훼손)</p>	<p><b>2. 동물해방, 동물권리 (Pathocentrism / Animal Rights)</b></p>  <p>핵심: 쾌고 감수 능력</p> <p>싱어: 쾌고 감수 능력 = 배려 기준. 종 차별주의 반대.</p> <p>살의 주체</p> <p>레안: 살의 주체인 동물은 도덕적 권리 보유, 수단 이용 금지.</p>	<p><b>3. 생명 중심주의 (Biocentrism)</b></p>  <p>슈바이처: 생명 경의. 생명 유지=선, 파괴=악.</p> <p>목적론적 삶의 중심</p> <p>테일러: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. 생태적 평등.</p>	<p><b>4. 생태 중심주의 (Ecocentrism)</b></p>  <p>대지 공동체</p> <p>레오폴드: 대지 윤리. 공동체의 온전함, 안정성, 아름다움 기여 = 좋음.</p>	<p><b>4. 생태 중심주의</b> : 레오폴드</p> <p>-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[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</p> <p>-자연(인간, 동물, 식물, 무생물)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됨</p> <p>-개별 생명체보다는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전체의 안정성과 조화를 우선시</p> <p>-전일론적 관점</p> <p>개체보다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 생명 공동체 [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에 관심</p>
<p>-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[온전성, 안정성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에 기여한다면 그 행위는 옳다.</p> <p>-개체는 상호 의존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.</p> <p>-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는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 <b>흙, 물, 식물, 동물, 곤</b> 집합적으로 대지를 포함한다.</p>				

※순서대로 드래그앤 드랍하세요: 의무는없다    대지윤리    아름다움    생명공동체    예외    직접적  
보존    공리주의    의무위반    인간자신    종차별주의    간접적